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소설교육 방안

-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중심으로 -

박준형*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방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III.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소설교육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어교육 현장에서 방언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방언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소설교육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방언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러 역량과 가치 중에 ‘의사소통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인 텍스트들을 통해 단선적인 사고만을 요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언교육을 소설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사구조나 맥락, 방언의 가치와 문학 속에서 작가가 방언을 사용하면서 의도한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예시로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통한 실제적 수업 흐름도를 제시하여 방언교육과 소설교육의 영역통합을 통해 방언과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주제어: 소설교육, 방언교육, 방언의 효과, 마당 깊은 집,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교육, 국어교육 영역통합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방언의 가치에 주목하여 소설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 문법교육에서는 표준어에 비해 방언이 소홀하게 다루어졌고¹⁾, 문법과 문학 교과와의 통합 교육 또한 충분히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학습자가 방언의 효과를 고려하여 소설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여, 문법과 문학 영역의 통합을 통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방언에 대한 연구는 방언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방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방언 교육에 대한 연구 등으로 있어 왔다. 대개 방언²⁾은 그동안 표준어 중심의 정책과 교육적 상황 속에서 비공식적인 언어로, 표준어의 정립 과정에서 배제된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된다.³⁾ 따라서 국

-
- 1) 정정순·신승용(2014: 366)은 교육 현장에서 방언의 위상이 낮다고 평가하며 가장 큰 이유로 방언이 표준어와 대비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국어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이 필수적인데, 어문 규범 교육에서 방언은 어문 규범에 반하는 언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 2) 방언이라고 할 때, 지역 방언만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정의에 따라 방언을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3) 김혜영(2009: 92-93)은 개항기부터 표준어 형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부르디외의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에 의한 시장의 단일화 및 의사소통 영역의 확대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적 틀인 민족국가의 내적 통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표준어 제정 과정을 바라본다. 이는 표준어가 자본주의 확산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추구하는 국가적 차원의 수단이기애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또한 장창영(2004: 207)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방언 사용자들은 표준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방언 사용자들은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상당 부분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언어에 대한 인식 왜곡과 이질성의 심화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였다.

어 교육에서도 방언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⁴⁾

본고는 방언이 소설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 있는데, 방언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방언 연구에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문학 속에 드러난 방언에 대해 올바른 해석과 사용 양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규(2003)와 현대 시의 방언은 비표준어로서 시적 효과가 있고, 지방어로서 공간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김동우(2010)가 대표적이다.⁵⁾

둘째는 방언과 문학교육의 접점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조규태(2003, 2008)는 지역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어 교육과 지역 언어 교육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서 문학을 활용해야 함을 주장한 연구이다. 김혜영(2009)은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문학에서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리얼리티의 문제, 토속성과 공감대 또는 민족 의식의 형성, 운율이나 이미지 등의 효과’로 나누어 살펴봄에 문학교육의 목표가 방언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

4) “[12언매02-11] 이 성취기준은 국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규범은 언어 사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요구하지만 구어와 문어, 문학과와 일상어, 표준어와 방언,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등에서 사용의 적절성 수준이 다르다. 규범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언어의 정확성뿐 아니라 적절성과 창의성에 주목하도록 한다.”(교육부 고시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p.112).

5) 문학 속 방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작가의 실제 삶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것이다. 둘째, 작가가 엄밀한 연구를 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방언이다. 셋째, 문학이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현존하지 않거나 변형되어 쓰이고 있는 방언형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

보다는 우려와 문제제기에 그치며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실천적인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논의로 정정순·신승용(2014)의 방언 교육과 시 교육의 내용 연계 방향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방언으로 된 시어의 특성과 양태들을 바탕으로 시와 방언 교육의 내용 연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시어에 대한 민감성(어휘 교육 연계), 맥락적 주체로서의 시적 화자(방언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형성)'를 고려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7차 교육과정의 이론을 바탕으로 2014년(2011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시기)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방언을 독립된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일반화된 예문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방언의 효과를 고려하여 소설을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 시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서사 문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살펴 방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방언의 효과를 고려하여 소설교육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II. 방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⁶⁾

기존의 국어교육이 구조주의적인 암기식 교육, 평가를 통한 대입 위주

6)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중 소설교육 부분에서 방언의 효과를 토대로 교육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고, 문법 영역에서만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방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방언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방언은 수업 중에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의사소통을 해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져, 표준어 중심의 국어과 교육 영역 내에서 ‘국어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되어 온 것이다. 국가 전역에 걸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제정하여 관리, 교육되고 있는 표준어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의 살아있는 언어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산물로서의 방언 역시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언 교육의 현황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통교육과정 검토

중학교 1-3학년 수준에서 방언은 문법 영역인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한 성취기준으로, 어휘의 체계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뉘고 어휘의 양상은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제시된다.

[표 1. 중학교 1-3학년 수준 방언 관련 성취기준]

연번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1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9국04-05] 이 성취기준은 어휘에 대해 체계를 세워 탐구하고 어휘의 특성이나 의미 관계에 따라 어휘의 양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어휘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은 어종(語種)에 따라 마련될 수 있으며, 어휘의 양상은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체계나 양상에 따라 어휘의 유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해당 성취기준을 반영한 교과서는 9종의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모두 1학년 1학기 단계에서 다루고 있다.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핵심 역량⁷⁾ 중에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교과서에서 구현하기 위해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품사의 체계’와 함께 단원을 구성하여 온전한 문법 영역의 단원을 구성한 것, 듣기·말하기와 함께 제시하여 의사소통 역량에 더욱 치중한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로 비상교육(김진수 외)의 교과서를, 후자의 예로 창비(이도영 외)의 교과서를 들 수 있다.

비상교육(김진수 외)의 『중학교 국어 1-1』에서는 담화 상황에 따라,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지역 방언을 활용하고 공식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학습활동에서 문학 작품(전성태, 「소를 줍다」)을 제시하며 소설에서 지역 방언이 인물의 심리 표현과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회 방언의 경우, ‘성별·세대·직업’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문어, 은어, 속어 등의 특성과 올바른 쓰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학습활동에서는 음악 관련 전문어를 사용하는 드라마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일반인에게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창비(이도영 외)의 『중학교 국어 1-1』에서도 학습 내용은 비상교육(김진수 외)의 『중학교 국어 1-1』과 거의 흡사하고, 학습활동에서는 문학작품이 아닌 관광 안내판에 지역 방언과 표준어가 함께 써 놓은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써 놓은 까닭이 무엇일지 탐구해보도록 제시되어 있다. 사

7)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회 방언과 관련해서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문화재를 설명한 안내문과 신조어를 활용해 아버지와 대화하는 학생을 보여주고 고쳐 쓰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 모두 방언의 가치와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한계점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방언의 예시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가 문맥상 해당 방언의 뜻을 유추하여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은 물론, 각종 문서에서 방언 관련 표현을 마주했을 때, 맥락과 어형 등을 토대로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언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될 수 있다면 더욱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 검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심화 선택 과목 중 ‘언어와 매체’에서 방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언어와 매체 교과목의 내용 체계는 ‘언어와 매체의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로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 ‘국어의 탐구와 활용’ 부분에서 방언에 대한 성취기준을 찾을 수 있다.

[표 2. 고등학교 수준 방언 관련 성취기준]

연번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1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 성취기준은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언어와 사고의 상호 영향 관계, 사회·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2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이 성취기준은 지역의 차이, 세대나 성별 또는 계층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국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다양한 방언 자료, 해외에서 생산된 국어 자료, 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 등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3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이 성취기준은 국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규범은 언어 사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요구하지만 구어와 문어, 문학과와 일상어, 표준어와 방언,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등에서 사용의 적절성 수준이 다르다. 규범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언어의 정확성뿐 아니라 적절성과 창의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언어와 매체”는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에서 독서를 독립시키고 문법 영역을 새로이 독립한 매체 영역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신설 교과목이다. 2019년 현재 5종의 『언어와 매체』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5종의 교과서 모두 두개의 단원에서 방언을 제시하고 있고, 언어의 본질을 밝히는 첫 단원은 공통적으로, 국어자료 혹은 국어 규범과 관련한 부분은 단원의 순서는 다르지만 교수 내용이나 구성은 거의 흡사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3. 선택중심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방언 수록 양상]

연번	교과	출판사	수록단원
1	언어와 매체	창비 (최)	I.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2) 다양한 국어 자료
2		비상 (이)	I. 언어와 매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위상

			V. 국어 자료와 매체 언어생활 (2) 사회와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이해와 생산
3		천재 (민)	I. 언어와 매체 언어 1. 언어와 국어 (1) 언어와 사고, 사회·문화 Ⅲ. 국어의 규범과 매체 언어의 성찰 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4		지학사 (이)	I. 언어, 매체, 삶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1) 언어의 본질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2. 국어 생활과 문화 (1) 국어 자료의 다양성과 국어 문화 (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5		미래엔 (방)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1) 언어와 국어 4. 국어 자료의 탐구 (1) 국어의 여러 가지 모습

5종의 교과서 중에서 창비의 『언어와 매체』(최형용 외)에서 방언이 제시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언어의 특성 중 방언

I.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
언어와 사회
언어는 지역이나 성별, 세대, 연령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의 사례를 살펴보자.
‘부추’를 일컫는 말은 ‘푸초, 염지, 솔, 정구지, 줄, 분추, 쉼우리’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분 제도가 있었던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고, 신분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게 나타난다. 세대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사회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또 집단 간의 이익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을 언어로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언어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창비, 『언어와 매체』(최형용 외) 15쪽.

[자료 1. 창비, 『언어와 매체』(최형용 외) 15쪽 삽화]



본 단원에서는 언어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사회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관계와 관련해서 학습하도록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방언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 2]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함께 사용된 예이다.

(자료 2. 참비, 『언어와 매체』(최형웅 외) 19쪽)

2 다음 대화 장면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재준'의 사회적 특성을 찾아보자. ▶

재준, 선준의 허리 검사 결과를 설명한다.

재준: 몸바 스파인 엠아르아이 검사상 엘포-파
이브-에스원 사이 디스크 에이치엔피 소
견입니다. 특히 4번, 5번은 요추 탈출 증
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략)

선준: 선배님, 좀 전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던
데요? 제 허리 많이 안 좋은 거죠?

재준: 1번, 4번, 5번 디스크, 곧 재발할 것 같은
데 수술하고 빨리 재활 시작하는 거 추천
한다. 오늘 출국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선준: 네, 밤에요.

재준: 빨리 가 봐라. 정신없을 텐데, 간다. 몸 관리 잘하고.




- 티브이엔(TVN) 「응답하라 1994」에서

방언을 통해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볼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탐구해보도록 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방언이 그 인물의 정체성, 지역성, 전문성 등을 반영해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 다양한 국어 자료 중 방언

교과서에서 방언이 두 번째로 제시되는 부분이 “다양한” 국어 자료의 이해와 활용과 관련한 [표 2]의 2, 3번째 성취기준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2) 다양한 국어 자료

국어는 지역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화

된 말을 ‘방언’이라고 한다. 이를 크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한 언어가 산맥이나 하천 등 지리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중략)…

그러므로 지역 방언을 이해하면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략)…

한편 화자의 연령이나 세대, 성별, 사회 계층 등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기도 한다. 한 언어가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르다’라는 말을 노년층 화자들은 ‘팔다리나 막대기 따위를 내뺌치어 대상물을 힘껏 건드리다.’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반면, 청년층 화자들은 ‘충동구매를 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세대에 따른 방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밖에 성별, 사회 계층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른 것도 사회 방언적 차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동일한 인물을 두고 여성은 ‘오빠’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남성은 ‘형’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어휘 사용의 차이를 보여 준다.

과거 궁중에서 사용하던 말인 ‘수라’나 ‘매화’에는 사회 계층에 따른 어휘 사용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특유한 언어적 표현들도 사회 방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방언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

- 장비, 『언어와 매체』(최형용 외) 112-114쪽.

해당 단원은 다양한 국어 자료의 특성 이해하기와 상황과 목적에 맞는 국어 자료 생산하기가 학습의 주안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정의와 예를 제시하고 방언을 학습했을 때의 효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다.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들처럼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이해하는 것이 담화 구성원 간에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상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림 3. 창비 『언어와 매체』(최형용 외) 119쪽 학습활동)

다음 만화를 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1) 할아버지와 점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 보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아버지의 말과 직원의 말을 바꿔 보자.

배치업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바꾼 말	할아버지	진부 커피 주세요. 뭐라고요? 그냥 따뜻한 걸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군것질할 만한 것은 없나요?
	직원	모자 커피에는 게피 가루를 뿌리는데 괜찮으세요? 크기는 작은 걸로 드릴까요?

그런데 앞서 제시한 본문과는 달리, [그림 3]인 단원 학습활동에는 지역 방언 화자인 노부부가 표준어 화자인 청년 직원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삽화가 제시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를 탐구해보고 할아버지의 말과 청년 직원의 말을 바꿔보자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를 고민해본 후, 그 말들을 표준 어형으로 바꾸어 보자는 활동은 표준어가 중심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⁸⁾ 해당 담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일 수 있을 것이며,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실제 학습자들의 언어 생활에서 지역 방언 화자와 표준어 방언 화자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그랬으며, 어떻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는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방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소설교육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방언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내용보다는 방언의 사용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잘 이해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음에 집중되어 교수 학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방언이 사용된 표현을 표준어로 바꾸어보는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방언은 의사소통의 측면 역시 중요하지만, 방언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도 집중되어 교육하는 것도 국어과 핵심역량을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8) 교과서 본문에서는 “지역 방언을 이해하면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표준어로 바꾸게 되면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교육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언에 대한 교육 내용이 단순히 개념을 살피고 의사소통에서 부작용을 낳고, 표준어형으로 바꾸어 보자는 활동보다는 학습자로 하여금 방언 표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를 유추하여 글이나 문장, 표현 등에 대한 이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언은 ‘민중성과 변두리(지방)성, 현장성을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⁹⁾이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방언은 개인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타인에게 수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언어 표현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방언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이나 거주지, 지역적 배경 등은 물론, 사회적 지위 혹은 직업과 소속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시된 짧은 텍스트보다는 서사가 있는 소설을 활용하여, 방언의 효과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시하기 위해서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¹⁰⁾을 텍스트로 삼는다. 『마당 깊은 집』은 전후의 대구를 배경으로 하는 장편 전후 소설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중 미래엔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마당 깊은 집’과 대구 중구 일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며 이 소설의 서사는 “소년

9) 이상규,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 『국립국어원 특집 방언과 문화』, 국립국어원, 2003, p.45.

10) 『마당 깊은 집』은 ‘문학’ 교육과정에서 ‘정전(定典)’작가로 분류되는 김원일의 장편 소설이다. 1988년에 출간된 이래로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MBC의 드라마로 제작, 방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9년 3월 6일에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마당 깊은 집”을 문학 체험관으로 꾸민 문학 체험관이 개관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1950년대, 한국전쟁 후 민족의 현실과 아픔을 잘 그려낸 소설이다.

이 중심이 되어 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와 거리로 나선 소년이 전해 주는 마당 깊은 집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¹¹⁾되어 청소년 성장 소설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 이 작품에는 방언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의 특이점이 있다.

첫째, 전후(1954년) 대구에 모인 각 지역 방언 화자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각 지역의 지역 방언으로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표준어를 사용하는 인물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당 깊은 집』은 방언의 효과를 고려하여 소설읽기를 교육하는 데 적합한 텍스트이다.

1. 『마당 깊은 집』과 방언

『마당 깊은 집』은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소설교육 텍스트로 매우 적합하다. 그 근거로 첫째, 작가 김원일이 경남 김해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유년기를 보냈지만 한국 전쟁 당시 월북한 아버지와 헤어지고 대구로 피난 온 후 대구에서 긴 시간을 거주한 지역문인이라는 점이다. 이태영(2004)은 문학 작품에 나오는 방언들은 그 효용 가치가 매우 크며,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대개는 작가 고향의 방언이거나 작가가 오랜 기간 익힌 방언을 구사하여 정제된 표현이 사용되고, 지역 방언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방언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며, 방언이 사용되는 문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김원일 작가의 성장 배경으로, 주인공이자 주 서술자인 길남이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과 대부분의 인물들이 대구/경상 방언을 쓰고 있다. 대구/경상 방언 화자가 아니면 읽어

11) 류동규, 「1954년 대구, 피난지 소년의 가족 로맨스-이동하 『장난감 도시』, 김원일 『마당깊은집』 읽기」, 『어문론총』 제55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p.294.

내기도 힘든 방언 표현들이 가감 없이 대화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방언의 언어 기록에 노출되는 것은 구어체 방언에 노출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방언이 문학을 향유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¹²⁾ 역시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표준어에만 익숙한 학습자들이 문어체의 방언을 접하며 작품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작중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규정지을 수도 있고, 사실적인 현장성을 통해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 방언으로 기록된 문학 작품을 읽는 문학적 효용이 크다. 또한 『마당 깊은 집』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제외한 서술자의 서술 부분은 표준어이므로 맥락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1) 나는 전쟁이 났던 해 겨울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으므로 3년 만에야 비로소 식구들과 한술밥을 먹게 되는 셈이었다. 대구시는 내게 낯선 도시였다. 누나를 따라 진영에서 대구시로 오니 오미 중학교 입학 시기는 끝난 뒤였다. (7쪽)
- (2)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너는 인자 애비 읊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신 쥬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너도 알제? 난리 겪으며 배를 칠칠 굶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렸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설움이 어떤 긴 줄 푼뚝히 봤을 끼다. 오직 성한 몸뚱이 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라 카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너는 위체에 사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 기라.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목을 것 넉넉하니까 저들이사말로 머가 부럽

12) “문학작품에서 방언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오히려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작품 감상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 장애뿐만 아니라 이해에도 심각한 지체(delay)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교감 형성과 정서적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의 경우 이와 같은 소통의 문제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중략) 의사소통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역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창영, 「시교육에서 방언 사용의 함의」, 『국어국문학』 제139집, 국어국문학회, 2004, p.210. 참조).

졌노...(후략)..."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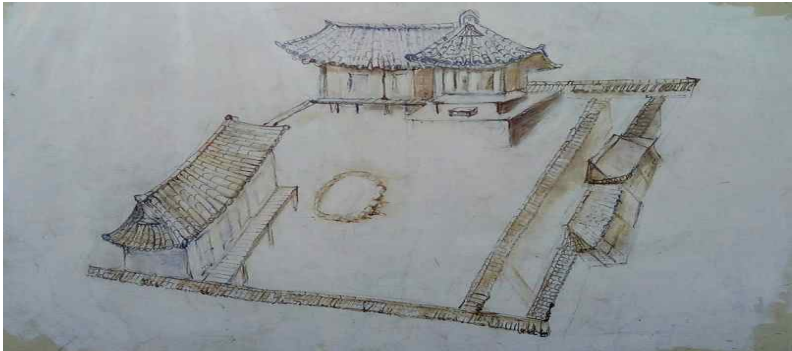
총 10장의 무제(無題)로 구성되어 있는 『마당 깊은 집』의 1장은 (1)에서 보듯이, 인물과 집에 대한 소개로 거의 대부분 표준어 서술자의 서술로 나타난다. 그런데 (2)는 2장의 시작 부분에서 길남이 어머니가 길남이를 불러 사회의 생리에 대해 이르는 장면으로 방언이 길남이 어머니의 성격과 세계관, 과거 등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마당 깊은 집』에는 대구/경상 방언 화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당 깊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5가구의 출신이 모두 다르다는 점과 당대 전후 사정상 다양한 지역에서 대구로 피난 온 지역어 화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집의 구조상 위채에는 주인집이 살고 있고, 4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래채에는 경기댁(경기도 연백군 출신), 준호네(강원도 평강 출신), 평양댁과 식구들(평안남도 평양 출신), 길남이네(대구 출신)가 살고 있다. 또한 바깥채에는 김천댁과 그 아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한 울타리 내에서 동고동락하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공동체로, 다양한 지역 방언들이 섞여 담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소설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황해도 출신의 ‘주억술’이라는 인물 역시 서북 방언을 쓰고 있다. 다양한 지역 방언들이 섞여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황을 다양한 사건들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인 것이다.

[자료 4. 『마당 깊은 집』 내부 구조도]

		위채	
아 래 채	첫째방:	경기댁	바 깥 채
	둘째방:	준호네	
	셋째방:	평양댁	
	넷째방:	길남이네	

[자료 5. 마당 깊은 집 전경(대구 마당 깊은 집 문학체험관 벽화)]



[표 3. 마당 깊은 집의 세대와 세대원 정리]

위치	특성	출신지	세대구성원
위채	주인집	경북 의성군	주인아저씨: 대구 침산동에 공장(오성직물) 운영. 외박과 만취가 잦음. 주인아주머니: 송죽극장 입구에 귀금속과 시계 가게를 열고, 부유층 부녀자 상대로 계주 노릇을 함. 노마님: 식모 안씨와 집안일담당. 아래채 사람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기 좋아함. 성준형: 학생이지만 공부보다는 외모 치장, 춤, 연애에 더 관심이 있음. 시내 사립학교 법대를 보결로 입학함. 그 외: 짱구형(고2), 똥똥이형(중2), 동희누나(고3)
아래채 첫째 방	경기택	경기도 연백	경기택: 개성에서 고등여학교까지 다닌 유식한 인물, 길남 어머니와 평양택과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노마님과 절친함. 홍규씨: 한국전쟁 전 개성에서 치과병원 근무 경력으로 위생병 근무. 전역 후 치과 병원 기공사 일을 함. 미선이누나: 미8군 PX(매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야간 고교 재학중.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함.
아래채 둘째 방	준호네	강원도 평강	준호아버지: 전쟁 중 오른팔을 잃어 쇠갈고리를 차고 다님. 악몽에 시달리며 전장의 악몽에 쫓김. 준호엄마: 과일 행상.

아래채 셋째 방	평양댁	평양	평양댁: 미군시장에서 헌 군복 판매업 종사. 미군 폭격으로 남편을 잃음. 순화누나: 오전에는 군복 세탁, 오후에는 수선일을 함. 정태씨: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음. 폐가 안 좋고 좌익사상에 빠져 있어 다른 인물들이 기피함. 민이형: 공부를 잘하는 경북고 3학년 학생. 위채의 가정 교사
아래채 넷째 방	길남이네	대구	어머니: 기생들의 옷을 샅바느질함. 전쟁의 체험을 통한 강인한 여성상을 대변함. 선례누나: 사범학교에 진학하여 선생님이 되길 원함. 나: 길남이 길중이, 길수: 남동생
바깥채	김천댁	경북 김천	김천댁: 대문 원컨. 골목길에 작은 가게 운영. 복술이: 아들

[표 3]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출신의 구성원들이 모여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각 지역 방언은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장면은 본문 3장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마당 깊은 집’의 마당이 물에 잠겨서 구성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물을 퍼내는 장면으로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의 (3)과 같다.

(3) “이보슈, 그쪽 사정은 어떠우?”

삼자루로 개골창을 쭈시던 준호 아버지가 판자벽을 치며 저쪽 집에 대고 물었다.

“마당과 정지에 물이 찼심더. 하수구가 막혀버렸는지 물이 통 빠지지가 않네예.”

뒷집 남자의 대답을 듣고 준호 아버지가 안마당으로 돌아나왔다.

“안 되겠구먼. 모두들 양동이 들구 나서우. 바깥마당으루 물을 퍼내는 도리밖에 방책이 없겠소.”

준호 아버지가 아래채 사람들에게 말했다.

(중략)

“빨랑 퍼두시오. 남자가 어찌 그렇게 힘이 없디요.”

계단 가운데에서 들통을 전달하던 순화 누나가 물을 푸는 홍규 씨에게 편잔을 놓았다.

“치과가 어디 힘으로 이빨 뽑나요. 그 말씀 듣기가 뭣하구먼.”

“홍규 씨가 순화 누나 말을 받았다.”

“아이구, 처녀 총각 두 사람이 짝이 됐으니 무슨 일 나겠데이. 양동이는 넘가주더라도 손은 잡지 말더라고.”

안 씨 말에 여러 사람이 웃었다.

“미선아, 나랑 자리 바꿔.”

(중략)

“그 주인댁 학생들두 여기 와서 거들라구. 느이들은 이 집에서 안 살아! 이 물난리에 주인이 어딴구 세 든 사람이 어딴어. 같이 도와야 할 게 아냐.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오!” 위채를 향해 준호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 말씀 한번 잘했세도.” 정태 씨가 맞장구쳤다.

“예, 그랄까 하던 참입니다.”

주인집 둘째 아들 짱구 형이 바지를 뚫은 둥둥 걷어붙이곤 계단으로 내려 섰다. 뚫뚫이 형도 따라나섰다.

“야들아, 어데 가노. 그 물이 다 똥물 아이가. 바깥 통시가 넘쳤다는 것도 모리나.”(62-67쪽)

(3)에서 준호 아버지(강원도), 순화 누나(평양), 홍규 씨(개성), 안 씨(대구), 미선이 누나(경기), 주인집 둘째 아들 짱구 형과 주인아주머니(대구)가 함께 대화를 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언 화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것을 교육 텍스트로 제시하면서 지역 방언의 사용이 의사소통의 방해가 된다는 주장보다는, 방언의 가치와 효과를 인지하고 더욱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통해 감정의 깊이가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방언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소설을 읽으면서 다양한 방언형을 문맥에 따라 읽으면서 방언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도 강화할 수 있다.

2.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프로그램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사항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학기 중 국어과 일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책을 선택하여 읽고 그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¹³⁾ 이는 기존 독서교육을 위한 교과서에 실린 글이 “특정 부분만 선별되고 잘린 탈맥락적인, 텍스트의 일부”이며 “독서의 전 일적인 과정 체험보다는 추상적이고 단선적인 기능을 연습하기 편리하게 재단된 도구에 가깝다.”¹⁴⁾라는 평가와 “독서 교육은 미시적이었고, 거시적인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¹⁵⁾라는 독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다. 이와 관련한 성취기준과 해설을 보면 다음의 (4)와 같다.

(4) a. 성취기준 : [9국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 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b. 성취기준 해설 : [9국02-08] 이 성취기준은 한 학기에 적어도 한 편의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경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참고하며 읽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한 편의 글’이란 앞뒤가 잘린 제재가 아니라 한 편의 완결된 글로서, …(중략)… 다소 긴 글을 읽다 보면 낯선 용어나 개념, 모르는 정보나 지식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도서관과 인터넷, 사전 등에서 참고 자료를 찾아 모르는 것을 해소하고 관련된 배경지식을 확충하면서 읽도록 지도한다.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1-3학년 수준

13) 김영란,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교육적 함의」, 『독서연구』 제21집, 한국독서학회, 2019, p.251.

14) 김혜정, 「‘학교 독서’의 비판적 검토와 구성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p.208.

15) 한철우, 『거시적 독서지도』, 역락, 2007.

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 형성, 능동적인 독서 태도 함양,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읽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 교육의 교수·학습 방향¹⁶⁾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의 상세설명에 다음의 (5)에서와 같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언급하고 있다.

- (5) ⑥ 한 학기에 한 권, 학년(군) 수준과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 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고,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한 학기에 한 권을 읽히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¹⁷⁾이 있을 수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16) ① ‘독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국어과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②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③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④ ‘독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⑤ 독서 방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독서를 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 독서 과정과 독후 과정 등 독서에 관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지식, 기능, 태도를 획득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⑥ 학습자에게 필요한 독서 상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운영한다.

17)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국어』, 교육부, 2016, p.20 참조.

“독서일지 쓰기, 서평 쓰기, 시 경험쓰기, 주제 탐구 보고서 쓰기, 주제별 책 읽고 발표하기, 책 대화하기, 질문으로 깊이 읽기, 쟁점이 있는 독서토론, 책 읽고 인터뷰하기, 시 영상 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온전히 해당 작품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3. 수업 흐름도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소설교육의 수업 흐름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읽기 전, 중, 후 활동¹⁸⁾을 활용할 수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주당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방과후학교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다음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당 깊은 집』 읽기 교육을 총 10차시로 설계하고, 그 가운데 8-9차시를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읽기 후 주제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으로 설계한 수업 흐름도이다.

대상	고등학생	일시	-	차시	8-9/10
학습 목표	방언에 대해 이해하고 방언의 가치를 파악한다. 방언의 효과를 활용하여 소설작품을 감상한다. 서사 구조와 맥락을 통해 방언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고 이를 통해 소설의 주제적 읽기를 실현한다.				
성취 기준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12독서04-02]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18)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글을 읽기 전에 독서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떠올려 보고, 독서의 목적이나 전-중-후 과정에 따라 다양한 독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글을 읽을 때 스스로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성찰 및 자기 점검 능력을 신장하도록 지도한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p.60 공통교육과정 “읽기”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참조).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8 차 시	도입 (10분) · 모둠별 수업준비 · ‘주제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 대한 안내 - 방언의 가치와 효과 언급 - 모둠별 『마당 깊은 집』의 방언과 관련한 여러 요소에 대한 주제 선정 · 유의사항 설명	PPT
9 차 시	전개1 (40분)	· 『마당 깊은 집』에 드러난 지역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왜 지역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인지 파악한다. · 『마당 깊은 집』의 등장인물들과 출신, 특성 등을 정리해보고 각 인물들의 방언사용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발췌해보고, 취합하여 『마당 깊은 집』에서 드러나는 지역 방언의 효과를 토의하고, 정리해 본다.	『마당 깊은 집』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전개2 (30분)	· 『마당 깊은 집』과 같이 지역의 방언이 잘 드러난 다른 소설 작품을 떠올려보고 소설에서 방언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 팀별 주제에 맞게 다른 문학 작품들과 『마당 깊은 집』의 인물들, 방언 활용 양상 등을 비교·대조 분석하여 방언의 효과를 역행 분석하고 방언의 가치와 활용 등에 대해 토의한다.	
	정리 (20분)	· 각 모둠별 주제에 맞게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모둠과 공유하고 환류 과정을 거친 후 수정한다. · 『마당 깊은 집』과 ‘주제 탐구 보고서’ 결과물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학습자 간 상호 공유

위 수업 흐름도는 개별 차시 수업지도안과는 다르게 큰 틀만 제시할 뿐, 본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세분화된 교수법과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여러 독서활동 중에 ‘주제 탐구 보고서’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학년 급이나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학습자들의 주체적 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면서 교수 학습의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0분을 1차시로 설정을 하고 총 2차시의 수업으로 계획한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모둠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준비한다. 그리고 전

차시 수업 내용을 복기시킨 후에 방언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언급한 후,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언과 관련한 여러 요소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제 탐구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교수자가 일정 수준 개입하여 주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전개1 단계에서는 소설에 드러난 지역적 요소를 찾아보고, 그 요소들이 왜 지역적 요소를 드러내는지 원인을 탐구해본다. 지역명이나 방언, 인물의 대화를 근거로 한 성격 형성 등이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활동 후에는 등장인물들과 출신, 특성 등을 정리해보고 방언사용 부분을 발췌해 본다. 이 발췌한 내용들의 맥락을 파악하고, 정리하면서 방언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전개2 단계에서는 확장학습을 유도한다. 본 소설처럼 지역의 방언이 잘 드러난 다른 소설 작품을 떠올려보고 그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한 것의 효과는 어떠한지 이야기해본다. 그리고 팀별로 선정했던 주제에 맞게 『마당 깊은 집』과 해당 소설의 비교·대조를 통해 방언에 대한 관점을 정립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각 모듈별 주제에 맞게 ‘주제 탐구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해보고, 다른 모듈과 공유하고 환류 과정을 거치며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는 결과물의 형식이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결과지나 기록지를 약식으로 제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방언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고 방언이 표준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이 아닌, 방언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소설에서 방언이 사용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하고 향후 소설 읽기와 이해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IV. 맺음말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에서 드러나는 현행 방언 교육의 방향성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나 학습자들이 표준어와 방언을 이분법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방언에 대해서 그 고유한 가치나 활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고려해볼 기회는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현행 교육상황이다.

그래서 어문규범이나 표준 발음, 상대방을 배려한 의사소통 등 문법과 화법 영역에서 주로 드러나는 방언의 교육적 요소들을, 소설 교육과 연계해서 궁극적인 방언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방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켜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구상해보았다.

방언의 효과를 체험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인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언 화자들이 쓰는 지역 방언의 형식과 의미를 이해하고, 방언을 통해 소설의 상황과 인물의 성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방언의 효과를 활용한 소설교육을 위한 수업 흐름도를 제시해보았다.

이러한 교수학습 결과, 학습자들은 다양한 방언이 포함된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며, 방언의 효과를 체험하면서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통력을 신장시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을 중심에 두거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 창작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방언의 효과를 고려하여 소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국어 교과 내 문법과 문학 영역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진수 외, 중학교 교과서 『국어 1-1』, 비상교육, 2017.
- 이도영 외, 중학교 교과서 『국어 1-1』, 창비, 2017.
- 최형용 외,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와 매체』, 창비, 2018.
- 교육부, 『교육부 고시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국어』, 교육부, 2016.
-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1991.
- 김동우, 「현대시의 방언과 공간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제28집, 한국시학회, 2010, pp.89-115.
- 김영란,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교육적 함의」, 『독서연구』 제51집, 한국독서학회, 2019, pp.251-282.
- 김혜영, 「방언과 현대문학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2009, pp.87-121.
- 김혜정, 「학교 독서의 비판적 검토와 구성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pp.195-232.
- 류동규, 「1954년 대구, 피난지 소년의 가족 로망스-이동하 『장난감 도시』, 김원일 『마당깊은집』 읽기」, 『어문론총』 제55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pp.283-303.
- 이상규,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 『국립국어원 특집 방언과 문화』, 국립국어원, 2003, pp.45-66.
- 장창영, 「시교육에서 방언 사용의 함의」, 『국어국문학』 제138집, 국어국문학회, 2004, pp.207-234.
- 정정순·신승용, 「방언 교육과 시 교육 내용 연계 방향 연구」, 『우리말글』 제61집, 우리말글학회, 2014, pp.365-389.
- 조규태, 「지역 언어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pp.169-188.
- _____, 「표준어 교육과 지역 언어 교육」, 『한글』 제262집, 한글학회, 2003, pp.247-288.
- 한철우, 『거시적 독서지도』, 역락, 2007.

Abstract

A Novel Education Plan Considering the Effect of Dialects

-Focusing on Kim Won-il's <The Deep-grounded House>

Park, Jun-hyeong

This study proposed a teaching plan in connection with fiction education through the critical review of dialec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we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dialects in the 2015 revised Korean curriculum textbooks, and focus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ies' among various competencies and values, requiring only one-line thinking through 'fragile' texts. In order to raise the issue, and to supplement such problems, dialect education should be combined with fiction education, focusing on narrative structure and context, the value of dialect, and the author's intended effect of using dialect in literature. This study proposed a semester-long book, such as Kim Won-il's "Deep House of the Madang." The book is selected and the class flow chart is briefly presented to expand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dialect and novel through the integration of dialect education and fiction education.

Key Word: fiction education, dialect education, effect of dialect, reading a semester, reading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gration

박준형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parkjh954@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11월 09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

